

트럼프, 중국에 경고 “재선 성공하면 무역 합의 아예 없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무역 합의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며 중국을 향해 경고를 날렸다.

지난 3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매우 나쁜, 27년 만에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며 “중국은 우리 농산품 구매를 시작하기로 돼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어떤 신호도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이것이 그들의 문제다. 그들은 그냥 이행하지 않는다”며 “우리 팀이 지금 그들과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항상 마지막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 협의를 바꾼다.”고 비판했다.

또 “그들은 ‘졸린 조’처럼 민주당의 융통성 없는 사람 중 한 명이 당선되는지 지켜보기 위해 아마 우리의 (내년) 대선을 기다릴 것”이라며 “그러면 그들은 지난 30년간처럼 대단한 협의를 만들어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크고 좋게 미국을 계속 뜯어먹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중국이 내년 대선 때까지 협상을 질질 끌면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기다리기의 문제점은 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들이 얻는 합의가 현재 협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거나 아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과거 지도자들은 결코 갖지 못한 모든 카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사실은 협의를 원하고 있지만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나와 합의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라며 “그러나 내가 합의할지 말지는 나에게 달려 있다. 중국에 달려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진정성’을 먼저 보이려며 미국의 압박에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대차, 미국 시장서 12개월 연속 판매 증가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일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5만7천340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5만1천137대) 대비12% 증가한 것이며, 작년 8월 이후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판매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지난달에도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전체 현대차 판매량 가운데 61%를 차지하며 효자 노릇을 했다. 싼타페(17%), 코나(53%), 아이오닉(141%), 투싼(11%) 등이 전년 동월 대비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북미 시장을 겨냥해 만든 대형 SUV 팰리세이드도 4천464대가 팔렸다.

같은 기간 기아자동차도 미국 시장에서 5만3천405대를 팔아 전년 동월(5만3천112대) 대비 0.6% 판매량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달까지 기아차의 연간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얼마 전 JD파워의 차량 성능 실행·배치를 평가하는 초기품질 부문(APEL)에서 1위를 차지한 포르테가 전년 동월 대비 21.5%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포르테는 5년연속 어필 어워드를 수상하며 컴팩트 세단 부문에서 동급 차종을 뛰어넘는 우수성을 가졌음이 입증됐다.

스포티지(22.3%)와 리오(22.9%)도 두 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럽, ‘중앙은행 금 협약’ 9월 폐기

유럽 주요 중앙은행이 금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체결했던 협약을 폐기하기로 했다.

개별 중앙은행이 자유롭게 금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됐지만, 국제 금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금을 대량으로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쟁적으로 통화완화정책을 펴면서 금값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26일 유럽 주요국 중앙은행이 맺은 ‘중앙은행 금 협약’(Central Bank Gold Agreement·CBGA)이 오는 9월 26일 만료되면, 다시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CBGA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과 스웨덴 리스뱅크, 스위스국립은행이 참여하는 협정으로 1999년 9월 체결됐다.

결됐다.

협약의 가장 큰 목적은 금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협정 체결 이후 첫 5년간 유럽 중앙은행들의 연간 금 매도량은 연간 400t으로 제한됐다. 이후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500t으로 늘었다가 다시 400t으로 줄어든다.

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로 안전자산이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금을 팔기는커녕 사들이는 중앙은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제 금값도 협정 체결 당시보다 5배 가까이 오른 온스당 1,41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사실상 금 협정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ECB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금시장의 유동성과 투자자 기반이 (협정 체결 때보다) 개선됐다”면서 “중앙은행의 금 매도를 조정할 이유가 없으며, 현재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대량의 금을 매도할 계획을 세운 중앙은행도 없다”고 전했다.

1275호 숫자퍼즐 정답

9	1	3	7	5	8	4	2	6
8	7	6	4	9	2	5	1	3
4	2	5	1	3	6	7	8	9
1	3	9	8	4	7	2	6	5
6	4	2	9	1	5	3	7	8
5	8	7	2	6	3	9	4	1
7	9	8	3	2	1	6	5	4
2	5	4	6	8	9	1	3	7
3	6	1	5	7	4	8	9	2

부동산 사고 팔 때는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 로즈메리!

Rosemary Hur
로즈메리 허
Realtor® | DRE #01967942
714.334.2292

부에나 파크 \$66만 방3/화2.5, 건평 약 1,900sf 아늑한 2층집 업그레이드, 높은 천장 HOA \$25	부에나 파크 \$65만 방4/화2.5, 건평 약 2,100sf 깔끔한 2층집 업그레이드 가까운공원, 학교, HOA 25불	요바린다 \$81만 방3/화2.5, 건평 약 1,800sf 멋지고, 매력적인 2층집 좋은 환경 HOA 87불	라미라다 \$65만 방5/화3, 건평 약 1,800sf 넓은 단층집 완전 업그레이드 가까운 쇼핑, 공원, 학교	라미라다 \$52만 방3/화2, 건평 약 1,300sf 조용한 고급 가격내림 가까운 골프장, 쇼핑, 식당
라미라다 \$58만 방3/화2, 건평 약 1,400sf 아늑한 단층집 깔끔한 조경 가까운 공원, 식당	플러튼 \$68만 방3/화2, 건평 약 1,300sf 편화하고 편안한 단층집 완전 리모델링 나무바닥	플러튼 \$64만 방3/화1.5, 건평 약 1,400sf 평화로운 단층집 많은 업그레이드 아름다운 정원	요바린다 \$74만 방3/화2, 건평 약 1,600sf 좋은위치의 단층집 새지붕 RV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요바린다 \$62만 방4/화2, 건평 약 1,700sf 멋진 단층집 완전 업그레이드 편리한 프리웨이, HOA \$60

* 팔고 사는 집, 언제나 신중함과 성실, 인내로 모십니다 * 학군 및 용자 상담

8663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